



지역을 담은 여행, 삶을 담은 방송 : 지역방송의 여행 프로그램

이해나
MBC경남 PD

목차

- 1 들어가며
- 2 섬의 삶을 기록하다 – 여수MBC 〈쉼, 島를 넘은 사람들〉
- 3 세대가 교차하는 길 위에서 – KNN 〈마실가요〉
- 4 일상과 여행의 경계 공간이 주는 서사 – MBC경남 〈더 터미널 쇼〉
- 5 종합 : 지역성과 보편성의 확장
- 6 마치며

요약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표준국어대사전은 ‘여행’을 이렇게 정의한다. 지역방송 여행 프로그램은 다른 고장에 사는 이를 우리 지역으로 불러들여 우리의 일상을 그들의 여행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 섬의 삶(여수MBC 〈쉼, 島를 넘은 사람들〉), 우리 골목 공동체(KNN 〈마실가요〉), 우리 터미널의 서사(MBC경남 〈더 터미널 쇼〉)를 기록했다. 지역 주민의 삶을 여행 프로그램의 중심에 두며 지역성을 실현한 성취다. 세 프로그램은 지역성에 뿌리 두면서도 보편적 공감을 끌어내며, 웹 플랫폼 확장과 IP화 가능성도 제시한다. 여기에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 있다.

1. 들어가며

편성표에 여행 프로그램이 등장하지 않는 방송사가 있을까. 전국 단위 방송사는 매일 유명 관광지와 맛집을 소개한다. 지상파뿐만 아니다.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여행 콘텐츠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구성도 비슷하다. 유명인의 반응, 유명인보다 이미 더 유명한 관광지(요즘 지상파 방송에는 기존 관광대국의 소도시 또는 험지가 등장하는 추세다.), 신선함은 없어도 시청자들은 열광한다. 그래서 잘 나가는 여행 프로그램은 모두 비슷 하지만, 지역방송의 여행 프로그램은 달라야만 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남들이 멀리 갈 때 지역방송은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조금 다른 길을 낸다. 대규모 예산이나 스타 출연진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할 수도 없다. 비행기 대신 통통배를 타고, 동네를 걸어 다니며 일상을 여행지로 만든다. 지역의 공간과 사람들을 화면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카메라는 때로는 오래된 목조 주택을, 때로는 골목의 작은 식당을, 때로는 터미널 대기실의 대화를 담아낸다. 연예인의 화려한 리액션 대신 주민의 굵은 손마디와 투박한 한 마디가 화면을 채운다. 평범하고 진솔한 장면들이 쌓이며, 지역방송은 전국 방송과 다른 색채를 드러낸다.

이동진 평론가는 행복을 강도가 아니라 빈도로 정의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자주 반복하는 일들이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 그의 말대로라면 발붙이고 사는 땅의 매력을 탐구하는 게 행복의 총량을 늘려주는 일이 아닐까. 소멸, 어쩌면 사멸에 가까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지역방송사의 심폐소생술 같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여수MBC <쉼, 島를 넘은 사람들>, KNN <마실가요>, MBC경남 <더 터미널 쇼>다. 전국 지상파 방송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방송이기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실험하고 더 깊이 들어가며 더 생활 가까이 다가간다. ‘여행’의 맨얼굴을 보여주는 세 프로그램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2. 섬의 삶을 기록하다 – 여수MBC <쉼, 島를 넘은 사람들>

[그림 1] 여수MBC <쉼, 島를 넘은 사람들> 포스터



출처 : 여수MBC

여수MBC의 2부작 여행 다큐멘터리 <쉼, 島를 넘은 사람들>에서는 가수 유나와 장재인이 여수 앞바다의 섬을 찾는다. K-POP 걸그룹 브브걸의 유나는 거문도와 백도, 가수 장재인은 초도와 손죽도를 찾아간다. 이들 여행자의 시선과 주민의 일상이 교차하면서, 섬의 공간과 시간이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유나는 서울에서 밤 기차를 타고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해, 이튿날 아침 일찍 여객선을 타고 거문도로 향한다. 이 작은 나라에서도 남쪽 지역 섬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 섬의 관문인 항구에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관광지가 아니라 섬 주민의 집이다. 100년이 넘은 목조주택이자 민박집으로도 쓰이는 곳. 섬에 유독 강하게 불어닥치는 태풍에 기와가 무너지고, 여러 차례 수리한 흔적도 눈에 띄지만,

여전히 사람이 사는 곳. 이 고풍스러운 공간은 단순한 여행지 숙소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섬이 품은 지난 역사를 말없이 전해준다.

이어 등장하는 또 다른 섬 주민. 텃밭에서 밭일하는 중이다. 거문도의 삶 속으로 들어온 유나가 산책 중 주민에게 말을 건넨다. 몇 마디 섞다 보니 밝혀지는 그의 직업은 해녀. 섬마을 해녀가 물질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상추를 따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껏 어떤 여행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었을까. “30년 가까이 물질을 해 왔다. 힘들어도 직업이니까 한다.”라고 말하는 해녀에게 바다는 매일 출근해야 하는 회사다. 일렁이는 바닷속에서 한숨에 숨을 참고 물질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간 여행 프로그램에서 ‘힐링’ 장치로 쓰이던 바다를 밥벌이 현장으로 바꿔놓는다.

물론 여행 프로그램의 본분, 현지 식재료 맛보기는 빠지지 않는다. 해녀가 일터에서 벌어온 것들로 명게무침, 홍합탕, 전복구이 등 푸짐한 저녁 밥상이 차려진다. 이렇게 집, 일, 밥상 등 모든 것에 섬의 삶이 담긴 곳에서 ‘가수’ 유나는 섬 주민으로 이뤄진 ‘등대밴드’와 같이 공연을 하는 등 본인의 일상에 섬의 삶을 녹여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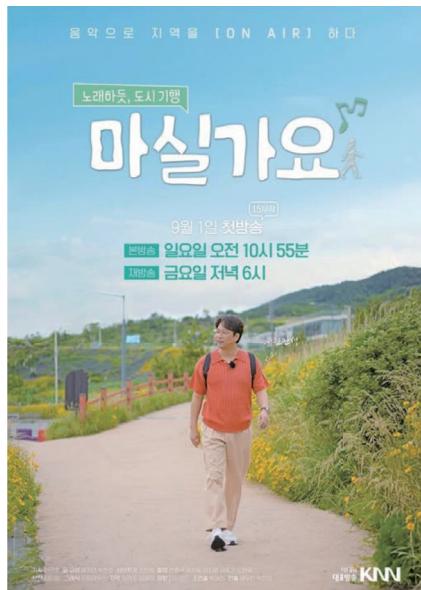
이어 초도·손죽도의 일상을 여행하는 이는 가수 장재인이다. <쉼, 島를 넘은 사람들>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섬 여행에 나선 여행자가 등산부터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산봉우리(초도 상산봉)에 올라서야 비로소 섬 주변 바다가 보인다. 멀리 바다를 바라보는 일보다 눈앞 산만 쳐다보는 게 우리 모두의 일상과 닮았다.

발전소 근무, 농사 등 결합기 식 여행 프로그램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섬에서 생계유지하는 법’도 등장한다. 역시나 매일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집밥. 마을 주민이 여행자를 위해 차려준 병어조림을 먹으며, 장재인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만들어 입에 넣어 준 병어조림을 떠올린다. 개인의 노스텔지어가 지역의 현재와 공명하는 지점을 포착함으로써, 시청자 역시 공감대를 품을 수 있다.

<쉼, 島를 넘은 사람들>은 여행자의 개인적 고민(가수로서의 불안, 일상에 대한 회의 등)과 섬 주민들의 묵묵히 살아가는 삶을 교차시킨다. ‘섬에 다녀오니 고민이 치유됐다’ 같은 알膑한 감정선 대신, 보는 이로 하여금 잠시 다른 삶을 살아보는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든다. 섬을 마냥 낭만적인 공간으로 미화하는 대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삶의 무게와 일상의 무료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매일을 살아나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냈다.

3. 세대가 교차하는 길 위에서 – KNN 〈마실가요〉

[그림 2] KNN 〈마실가요〉 포스터



출처 : KNN

<마실가요>는 ‘마실’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배우 오만석이 KNN의 방송 권역인 부산과 경남의 이웃 동네들에 놀러 다니는 프로그램이다. 그는 부산의 유명 관광지 대신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걸어 다니며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일상에서 지역, 아니 지역보다 좁은 동네의 이야기를 벌굴한다. <마실가요>는 ‘길’이라는 보편적 공간을 매개로, 그 길 위에 쌓인 시간과 기억 그리고 길을 매일 오가는 이들의 삶을 엮어내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 특별하지 않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여행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총 15편으로 만들어진 <마실가요> 중 2편 ‘그곳에 마을이 있다’편에서 오만석은 부산 금정구를 찾는다. 총길이 20km에 이르는 회동수원지 둘레길은 여행자에게는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곳이지만 동네 주민에게는 그저 매일 걷는 산책길일 뿐이다. 병원의 아침밥을 다 짓

고 나와서 이 길을 걷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조리사들, 밭으로 가는 출근길로 둘레길을 이용하는 주민 등 행위의 반복으로 삶에 리듬을 부여하는 동네 사람들이 잇따라 등장한다.

이어서 등장하는 60년 된 동네 노포. 대표 메뉴는 회동수원지 일대에서 많이 잡히는 민물고기 향어회다. 낡은 건물에 비해 많이 짚어 보이는 주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장인의 뒤를 이어서 가게를 지키는 사위다. 그는 자신이 나고 자란 동네를 지키고 자신을 아들처럼 아껴준 장인을 기리기 위해 식당 운영에 열심이다. 그 덕분에 오래된 동네 식당이란 지역의 역사와 개인의 기억을 연결하는 공간임이 드러난다.

13편 ‘다정히 손 내밀다’ 편의 첫 번째 여행지는 구덕운동장이다. 1928년 설립돼 약 100년의 역사를 품은 구덕운동장은 과거와 현재가 포개어진 공간이다. 사직운동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부산의 유일한 종합운동장이었기 때문에 88 올림픽 등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의 장이었던 곳. 마실 다니다 만난 동네 어르신은 김일, 이왕표 등 프로레슬링 전성기의 선수들 이름을 대며 이 공간의 전성기에 담긴 추억을 꺼내 보인다. 1992년, 롯데 자이언츠가 마지막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을 때 홈구장도 구덕운동장이었다. “동네가 뒤집어지고 잔치가 열리고 난리였다.”는 또 다른 토박이 주민의 증언도 이어진다.

화려했던 시절을 간직한 이곳은 이제 시민의 홈구장이 됐다. 게이트볼, 농구, 풋살 등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고, 부산 유일의 육상 트랙 보유 운동장이라 부산 지역 중고교 육상부 학생들의 훈련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마실가요>는 이렇듯 한 장소에 얹힌 여려 세대의 기억을 조명함으로써 공간에 서사를 부여하는 일에 능하다.

부산 산복도로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산동네, 아미동 비석마을이 다음 마실 장소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일본인 공동묘지에 천막을 치고 살던 곳이 그대로 비석마을이 됐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처 위에 쌓아 올린 삶. 현재 이곳에서는 평균 나이 78세 ‘백세밸레단’ 단원들이 발레를 배우며 유연함을 기르는 중이다. ‘허리가 43인치인데 발레복이 들어가겠어?’, ‘팔도 다리도 안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흥볼 거야’라고 생각 하던 단원들은 “이렇게 재밌게 발레하면서 좋은 세월 살고 싶은데, 지금은 죽을까 싶어 겁난다.”고 말한다. 그렇게 주민의 활력과 긍정이 동네의 아픔을 덮어버리는 서사가 만들어진다.

과거의 공간은 이제 또 다른 삶의 무대로 변모해 있었다. <마실가요>의 성취는 여기에 있다. 수원지, 운동장, 비석마을 등은 모두 일상의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주민들의 기억과 현재가 겹치며 연결과 공동체의 의미가 드러난다.

4. 일상과 여행의 경계 공간이 주는 서사 – MBC경남 <더 터미널 쇼>

[그림 3] MBC경남 <더 터미널 쇼> 포스터



출처 : MBC경남

2부작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더 터미널 쇼>는 공항, 여객터미널 등 ‘이동’이라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계 공간 터미널을 무대로 삼는다. 이 프로그램의 독창성은 터미널을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닌 ‘삶의 전환점’이 담긴 상징적이고 다층적인 공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있다.

MC 빠니보틀과 김풍은 시민들에게 항상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목적지, 삶의 방향성, 앞으로의 목표가 다 들어있다. 출발과 도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즉흥적인 티키타카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을 길어 올린다.

현시점 빠니보틀과 김풍은 웹 예능 최강자다. <라면꼰대>, <파김치갱> 등 시리즈 콘텐츠를 통해 코어 팬도 확보하고 있다. 여행 콘텐츠에서 빠니보틀을 넘어서는 파급력을 가진 이는 거의 없으며, 김풍은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다. <더 터미널 쇼>의 또 다른 성취가 여기에 있다. 전국 방송에서는 볼 수 없던 유명인의 새로운 면모를 조명한 것. 안 가본 해외 국가가 드문 빠니보틀이 정작 경남 통영에는 인생 처음으로 방문한다. 웹툰 작가, 야매(?) 세프로 유명했던 김풍은 안정적인 토크쇼 호스트로서 자질을 물씬 드러낸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무대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터미널답게 다양한 여행자들이 등장한다. 서울-부산 ‘롱디’ 연애 끝에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는 “이제 함께 떠난다.”며 설레는 마음을 전한다. 입대를 앞둔 청년은 제 몸만 한 배낭을 메고 해외로 장기 여행을 떠나며 군필 MC들에게 두려움을 털어놓는다. 탄자니아 철도 건설 작업을 도우러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로 출근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장인들도 있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설렘, 불안, 일상의 연장이 교차하며, 공항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품은 장소로 기능한다.

MBC경남의 방송 권역에서 촬영한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편은 지역적이고 지리적인 맥락을 깊이 드러낸다. 섬 주민들에게 배는 생필품을 사러 나가고, 병원 진료를 보러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절대적 교통수단이다. “배가 버스와 같다.”는 한 시민의 말은 섬 주민들의 삶에서 배가 가진 절실함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날씨 때문에 배가 끊기면 섬의 생활이 즉시 정지되는 상황은 자연환경과 삶이 직결된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반면, 관광객들은 섬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들뜬 표정으로 터미널에 머문다. 주민의 생존과 관광객의 기대가 같은 공간에서 만나는 순간, 터미널은 이동과 삶의 무게가 맞부딪히는 경계 공간으로 재현된다.

<더 터미널 쇼>는 이름에 걸맞게 터미널을 다양한 삶의 서사가 스쳐 가는 상징적 무대이자 잔재미가 넘쳐나는 토크쇼 세트로 그려냈다. 이는 ‘떠남’과 ‘돌아 옴’이라는 행위가 가진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탐색하며, 즉흥 인터뷰 속에서 드러난 각자의 이야기는 경계 공간이 품은 다양성과 상징성을 보여준다.

5. 종합 : 지역성과 보편성의 확장

[그림 4] MBC경남 〈더 터미널 쇼〉 12부작 티저 포스터



출처 : MBC경남

여수MBC 〈쉼, 島를 넘은 사람들〉, KNN 〈마실가요〉, MBC경남 〈더 터미널 쇼〉는 우리의 일상을 타인이 여행해 볼 기회를 마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파고들면서도, 보편적 공감을 끌어내려 노력했다. 〈쉼, 岛를 넘은 사람들〉은 섬의 삶의 무게를, 〈마실가요〉는 골목과 길을 매개로 이어진 일상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더 터미널 쇼〉는 터미널의 이동 서사를 통해 사람들의 인생 전환점을 기록했다.

지역방송의 경쟁력은 지역성에 뿌리를 두되, 보편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있다. 주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이야기는 단순히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모든 시청자에게 정서적 공감과 위로를 준다. 나아가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적 매개체로 기능한다.

지역과 지역 콘텐츠를 살리려면 역으로 지역을 넘어서야 한다. 전통적 지상파 방송 플랫폼의 한계를 넘는 생산과 유통 전략이 지역방송사에 더 긴요한 이유다. 유튜브 등 웹 기반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은 이제 지역방송사에겐 가윗일이 아닌 필수 업무다. 웹

환경의 짧고 빠른 호흡, 자유로운 편집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KNN <마실가요>의 사례를 예로 들면, 특정 주민과의 대화를 솟폼 형태로 편집하거나, 출연자가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한 비하인드 영상을 스페셜 클립 등의 형태로 제작해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콘텐츠는 그간 지역 지상파 방송에 도달하지 못했던 타깃에 닿을 수 있고, 팬덤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한다. ‘진짜’지역 이야기는 ‘바이럴’로 확산될 수 있는 최적의 콘텐츠다.

지역방송은 제작과 유통 파트너 유치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여수MBC의 <쉼, 島를 넘은 사람들>이 보여준 섬의 삶은 장기적으로 관찰할 가치가 있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확장될 수 있다. 지역방송이 단순 지역 홍보 채널을 넘어, 특색 있는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제작사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MBC경남의 <더 터미널 쇼>는 2025년 하반기에 12부작 정규 예능 프로그램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6. 마치며

지역방송이 단순히 지역을 알리는 채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보편적 정서로 연결하는 서사적 힘을 발휘할 때, 그 브랜드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지상파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에 국한된 콘텐츠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진짜에 열광한다.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를 원한다. 지역방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가진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의 삶, 지역 고유의 풍습과 일, 그 속에 담긴 희로애락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는 콘텐츠 파워를 가졌다. 마침 한정된 전파권에 갇혀 있던 콘텐츠가 전국, 나아가 글로벌 시청자에게까지 전달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매체 환경과 기술 진보 덕분이다. 지역방송은 지역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서사를 더욱 다층적으로 구현하고, 시대 상황과 문명의 이기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게다가 지역방송의 여행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일거양득의 콘텐츠다.

지역방송은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함께 탐색하는 문화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 주민들의 목소리와 생활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세계적 공감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지역방송은 미래 미디어 환경 속에서 더욱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